

엘리아 - 번호 8

여리고

Jeff Pippenger

2023-10-09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의 시작(홍해 도하)과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시작(대실망)에서, 궁극적으로 최종 시험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점진적 시험들이 시작되었다. 그 마지막 시험의 실패는 민수기와 밀러파 역사 모두에서 광야 방랑의 시작을 알린다.

사십 년 동안 불신과 원망과 반역이 고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같은 죄들이 현대 이스라엘이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켜 왔다.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에 잘못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우리를 이처럼 오랜 세월 죄와 슬픔의 이 세상에 붙들어 둔 것은 주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사이의 불신과 세속성, 헌신의 결여, 그리고 다툼 때문이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순종 때문에 이 세상에 훨씬 더 오랜 세월 머물러 있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의 백성은 자기들의 그릇된 행로가 초래한 결과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 죄에 죄를 더하지 말아야 한다. 복음전도, 696.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 말기에는 처음과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시험의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고대의 문자적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끝났다. 현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말기에도 그들 역시 점진적인 시험의 과정을 맞게 될 것이다. 그 과정은 일요일 법령이 시행될 때 라오디게아의 재림교인들이 무너짐으로써 끝난다. 고대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현대 이스라엘도 영적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예언적으로 1798년에 시작되어 1863년에 공식적으로 끝난 밀러주의 운동은, 1989년에 시작되어 인류의 은혜의 시간이 마치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끝나는 14만 4천의 운동을 예표한다. 밀러주의 운동의 종료와 셋째 천사의 강력한 운동이 도래함 사이에는, 법적으로 등록된 라오디게아 상태의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역사가 있다.

"가나안 변경에 있는 가데스와 시나이 사이의 거리는 불과 열하루 길이였다; 마침내 구름이 전진하라는 신호를 주었을 때, 이스라엘의 무리는 머지않아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리라는 기대를 품고 행군을 재개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과정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고, 이제 그분을 그들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기로 공식적으로 언약을 맺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택하신 백성으로 인정받았으니, 그들이 어떤 복인들 기대하지 않겠는가?" 족장과 선지자, 376.

그들의 짧은 여정은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결국 40년으로 늘어났다. 그들이 노예 상태에서 강력하게 구원받은 사실에 근거한 믿음을 나타냈더라면, 곧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것이다. 그 후 그들이 맞닥뜨렸을 첫 번째 장애물은 훗날 여호수아가 맞섰던 바로 그 장애물이었을 것이다. 40년이 지나 문자적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을 향해 광야를 떠났고, 여리고는 그들의 첫 관문이었으며,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으로 서 있다. 여리고는 또한 1863년에 밀러주의

운동이 맞닥뜨려야 했던 과업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광야로 물러났다. 엘리야의 상징성은 여리고의 상징성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엘리야의 여리고와의 역사적 연관성을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다.

오므리가 행한 그 남은 사적과 그가 나타낸 권세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므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사마리아에 장사되니, 그의 아들 아합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 왕 아사의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였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이십이 년 동안 다스렸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자기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는 마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을 따라 행하는 것도 가벼운 일인 것처럼, 시돈 사람의 왕 옛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기며 그에게 경배하였더라. 그가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집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며, 아합이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더라. 아합은 자기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였더라. 그의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그 터를 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는 막내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길르앗 거민 중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그 앞에 서서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열왕기상 16:27-17:1.

갈멜 산에서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신들과 벌였던 대결은,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왕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북이스라엘의 일곱째 왕의 배교에 대한 응답이었다. 해당 본문에서 'provoke'라는 단어는 민수기 14장의 열 번째 시험으로 상징된 "day of provocation"을 가리킨다. 아합이 하나님을 격노하게 한 일은 민수기 14장에서 열 명의 정탐꾼의 악한 보고로 인해 초래된 열 가지 시험 중 마지막 것을 대표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밀러주의 운동을 위한 마지막 시험과 14만 4천을 위한 마지막 시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격노하게 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히브리서 3:7, 8.

아합으로 대표되는 예언적 "도발의 날"에 선지자 엘리야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심판을 내리셔서 그의 백성이 자신들이 행하던 죄에서 회개하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점차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잃어버려,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그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무런 권위도 갖지 못하게 되었다. "아합의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으니, 그가 그 기초를 장자 아비람으로 놓았고, 그 문들을 막내아들 스굽으로 세웠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였다."

이스라엘이 배도하고 있을 때에도 엘리야는 충성되고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남아 있었다. 그는 불신과 불충함이 이스라엘 자손을 급속히 하나님에게서 떼어 놓는 것을 보며 신실한 영혼이 크게 괴로워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다. 그는 주께서 죄를 짓는 자신의 백성을 전적으로 버리지 않으시고, 필요하다면 심판으로 그들을 깨워 회개하게 하시며, 그들이 죄 가운데서 더 멀리 나아가 그분을 격노하게 함으로써 그들을 한 민족으로서 멸하시게 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시기를 간구했다.

이스라엘의 최악 때문에 임할 그의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와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에게 가라고 하셨다. 엘리야는 밤낮으로 길을 재촉하여 아합의 궁에 이를 때까지 갔다. 그는 들어갈 허락을 구하지도 않았고, 정식으로 알리는 절차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아합으로서는 전혀 뜻밖이었는데, 예언자들이 흔히 입는 거친 옷차림을 한 엘리야가 사마리아의 놀란 왕 앞에 섰다. 그는 초대 없이 느닷없이 나타난 것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며 이스라엘에 임할 심판을 엄숙히 선언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엄중히 선포하는 이 놀라운 규탄은 배교한 왕에게 벼락처럼 내리꽂혔다. 그는 놀람과 공포로 마비된 듯했다. 그가 놀라움에서 채 회복하기도 전에, 엘리야는 자신의 메시지가 어떤 효과를 낼지 보려고 기다리지도 않은 채, 나타났던 것만큼이나 갑자기 사라졌다. 그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화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고, 그는 곧바로 물러갔다. 그의 말이 하늘의 보고를 잠가 버렸고, 다시 그것을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도 그의 말뿐이었다. 증언, 제3권, 273쪽.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방 민족들과 어울리지 말고, 여리고를 결코 재건하지 말라고 엄히 명했던 것을 잊어버렸다.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낸 엄청난 현시이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었지만, 여리고에는 또한 죄와 저주와 구원이 얽혀 있었다. '죄'는 여리고의 재물과 영향력을 탐한 아간의 죄였고, '저주'는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에게 내린 것이며, 기생 라합은 '구원'을 상징했다. 아간은 아름다운 바벨론의 겉옷을 원했다. 그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앞으로 엮은 옷으로 죄를 가리려 했던 것처럼,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아간은 여리고가 상징하는 번영을 갈망했고, 바벨론과 관계를 맺고자 했다.

여리고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세상에 전하는 사역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시되지만, 세상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죄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다. 여리고의 상징에는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에 대한 저주도 포함되어 있으며, 라합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선포될 때 바벨론에 아직 남아 있다가 나오는 자들을 상징한다.

엘리야의 신실한 영혼은 깊이 슬퍼했다. 그의 분노가 일어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질투심으로 불타올랐다. 그는 이스라엘이 두려운 배교에 빠져들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행하신 큰 일들을 떠올릴 때, 그는 슬픔과 놀라움에 압도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백성의 대다수에게 잊혀졌다. 그는 여호와 앞에 나아가, 영혼이 고통으로 쥐어짜이는 가운데, 설령 심판으로라도 그의 백성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는 그의 백성에게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비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했다. 그리하여 배교한 이스라엘이 그들의 신들, 곧 금과 나무와 돌의 우상들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헛되이 바라보아 땅을 적시고 풍성하게 하여 결실하게 하려 해도 아무 소용없게 되게 하시기를 구했다. 여호와께서는 엘리야에게 그의 기도를 들으셨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그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그의 백성에게서 이슬과 비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백성이 주위의 우상숭배하는 민족들과 섞이지 않도록 특별히 보호하셨는데, 이는 사람들의 감각을 타락시켜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려는 의도로 가장 값비싸고 유혹적인 방식으로 꾸며진 매혹적인 수풀과 사당, 신전과 제단들에 그들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여리고 성은 극도로 방탕한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다. 그 주민들은 매우 부유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모든 재물을 자기들의 신들이 준 선물로 여겼다. 그들에게는 금과 은이 풍부했으나, 홍수 이전의 사람들처럼 부패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로 하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진노하게 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를 대적하여 일어났다. 그곳은 요새였다. 그러나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친히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거대한 성벽을 붙잡아 땅에 넘어뜨렸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을 진멸하기로 정해졌고 라합과 그 집안을 제외한 모든 자는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라합이 여호와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께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이러했다. '오직 너희는 그 진멸할 것에 대하여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 진멸할 것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진멸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진을 저주 아래 두어 괴롭게 하지 않도록 하라.'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이 여리고 성을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 기초를 그의 맏아들로 놓을 것이요, 그 문을 그의 막내아들로 세우리라.'

하나님은 여리고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셨다. 이는 백성이 그 성의 주민들이 숭배하던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단호하고 분명한 명령들로 자신의 백성을 지키셨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엄숙한 금령에도 불구하고 야간은 감히 그것을 어겼다. 그의 탐욕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금하신 보물들을 그가 취하고 말았다.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원수들 앞에서 물처럼 약해졌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크게 곤고하였다. 주께서 그의 백성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극히 낮아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울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고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내 언약을 어겼다. 그들이 저주받은 것 가운데서 취하였고, 또한 도둑질하였으며, 속이기까지 하여 그것을 자기들의 물건 가운데 두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의 원수들 앞에 서지 못하고, 저주를 받았으므로 원수들 앞에서 등을 돌려 도망하였다.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그 저주받은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여기서,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보여 주심으로 알게 되었다. 옛 이스라엘이 그랬듯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의 나타남을 목격하는 특별한 영예를 받은 자들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분명한 지시를 감히 무시하려 드는 자들은 그분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분은 불순종과 죄가 그분께 지극히 혐오스러운 것이며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하신다." 증언, 제3권, 263, 264쪽.

여리고 이야기는 사악하고 부요한 도시의 겉보이는 힘과 영광을 신뢰하지 말라는 경고를 담고 있다. 성경 예언에서 '도성'은 '왕국'을 가리키며, 아간은 바벨론의 의복을 취했다. 의복은 예언적으로 품성을 상징하므로, '말세'에 아간이 바벨론의 의복을 숨긴 것은 영적 바벨론의 품성을 소유하려는 감추어진 욕망을 나타낸다. 영적 바벨론의 품성, 곧 그 형상이 바로 미국이 교회와 국가를 결합할 때 탐하는 것이다.

밀러주의 운동의 청년들이 남북전쟁에 징집될 가능성에 직면하고 조직의 필요성을 인식하자, 운동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결코 동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부유한 국가와 법적 관계를 맺었다. 그 부유한 국가의 헌법조차 교회가 국가와 연결될 필요가 결코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다. 밀러주의 시대에 존재했고 오늘날까지도 존재하는 교단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미국 정부와 법적 관계를 맺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그렇게 관계를 맺지 않기로 한 그들의 선택이 각자의 교회를 조직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든 결코 장애가 된 적은 없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 전투를 치른 지 오래 지난 아합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배교한 백성들이 아간의 배교 사건과 여리고의 멸망이 주는 모든 경고를 잊고 말았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에 이르도록,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말씀을 기록할 때, 그 약속은 주께서 세상을 저주로 치실 것이라는 맥락 속에 제시된다. 여리고와 관련된 저주는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 누구에게든 임하는 것이었다. 그 저주는 또한 아간처럼 여리고와 연관된 부와 풍요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임했다. 아간의 '죄'는 바벨론식 의복을 입고자 하는, 감추어진 성화되지 않은 내적 욕망을 나타낸다. 그 '저주'는 그 내적 욕망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밀러의 기별은 그의 시대를 위한 엘리야 기별이었고, 남북전쟁은 그 엘리야 기별에 수반되는 심판을 나타냈다. 1863년 남북전쟁의 한가운데서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여리고를 재건했는데,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자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한 저주의 내용이 이를 증언하듯이.

그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 앞에서 이 성 여리고를 일어나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 그가 그 기초를 그의 맏아들로 놓고, 그 문들을 그의 막내아들로 세우리라." 여호수아 6:26.

여호수아의 명령에서 "adjured"라는 단어는 맹세이자 저주이다. 여호수아의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고, 그 맹세를 지키면 복을 받는다. "adjured"로 번역된 단어는 레위기 26장에서는 "일곱 번"으로도 번역된다. 다니엘이 9장에서 표현한 모세의 맹세와 저주는 여리고 재건과 연결되어 있다.

참으로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어기고 돌이켜 떠나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저주가 우리 위에 쏟아졌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임하였나이다. 이는 우리가 그에게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 9:11.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관하여 매우 세심하셨다. 이는 백성들이 그 주민들이 숭배하던 것들에 마음이 끌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멸망을 이루심에 있어서도 매우 세심하셨고, 그러므로 아간 사건이 보여 주는 경고를 기록하시는 데에도 매우 세심하셨다. 또한 여리고 재건과 관련된 저주를 기록하는 데에도 세심하셨고,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신 방법을 밝히는 데에도 세심하셨다.

여호와와 그의 군대의 대장으로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여리고의 성벽을 무너뜨리도록 지시하신 것이 분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어떤 것도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한 여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여리고에 관하여 매우 엄격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일곱 날 동안 언약궤를 메고 그 성 주위를 돌았고, 예언에서 하루는 일 년을 의미합니다. 그 원칙은 사십 년 광야 방랑의 시작에 기록되었고, 그 사십 년의 끝에 그들은 일곱 날 동안 여리고 성을 에워싸 돌았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정탐한 날수대로, 곧 사십 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쳐서, 너희는 사십 년 동안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내가 약속을 어겼음을 알게 되리라.
민수기 14:34.

일곱 날 동안 언약궤를 메고 성 주위를 돌았고, 일곱째 날에는 성을 "일곱 번" 돌았다. 이는 여리고가 모세의 맹세의 "일곱 번"과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두 가지 예언적 증거를 제공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제사장들이며, 일곱 제사장이 일곱 나팔을 불었다.

너희도 살아 있는 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거룩한 제사장 무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5

나팔은 그것이 사용되는 문맥에 따라 경고의 메시지, 심판, 또는 거룩한 성회로의 부름을 상징한다. 말세에는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 것이니, 이는 밀러파의 역사에서 그들이 나팔을 불었던 것과 같다. 제사장들은 시온의 성벽 위에서 나팔을 불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동시에 바로 그들을 거룩한 성회로 부르는 파수꾼들을 대표한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라. 땅의 모든 주민은 떨지어다. 이는 여호와와 그의 날이 이르렀음이니, 그 날이 가까이 왔음이라 ...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금식을 성별하고, 엄숙한 모임을 소집하라. 백성을 모으고, 회중을 성별하며,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까지 모으라. 신랑은 자기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자기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아끼시고 주의 기업을 수치에 넘기지 마소서. 이방인들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찌하여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게 하시나이까?' 하라. 요엘 2:1, 15-17.

나팔의 메시지는 엘리야의 메시지다. 여호수아 6장에서 "일곱"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방식으로 쓰인 모든 경우는,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단어와 동일하거나 그와 관련된 파생어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의 신학자들이 늘어놓는 꾸며낸 이야기들은,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단어가 단지 권능의 충만, 완전함, 혹은 그 밖의 어리석은 변형들을 뜻할 뿐이라고 주장하며, 밀러가 그 "일곱 번"이라는 단어에 수치적

가치를 적용한 것이 옳았다는 사실을 부정한다. 제사장들은 여리고를 “충만”이나 “완전함”을 나타내도록 돈 것이 아니라, 그 성 주위를 일곱 번 돌도록 백성을 인도했다. “일곱 번”으로 번역된 그 단어는 수치적 가치를 나타낸다!

여리고에서 백성이 외쳤을 때, 그것은 다니엘서 2장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십사만 사천의 큰 외침을 상징했는데, 그들은 그 형상을 쳐서 산산이 부수는 자들이다.

그리고 이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니,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이 모든 나라들을 산산조각 내어 멸망시키고,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네가 보았듯이, 사람의 손을 쓰지 않고 산에서 떼어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 내었으니,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일어날 일을 왕에게 알려 주신 것이다. 이 꿈은 확실하고 그 해석은 틀림없다. 다니엘 2:44, 45.

하나님은 여리고에서 발견된 귀중한 금속을 금, 은, 놋, 철로 세심히 열거하셨다. 예언적으로 볼 때, 진흙은 라합으로 예표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 여리고는 14만 4천의 큰 외침 동안 모든 세상 나라들의 종말을 상징한다.

그러나 모든 은과 금과 놋과 철로 만든 그릇들은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된 것이니, 그것들은 여호와의 공간에 들어가리라. 여호수아 6:19.

여리고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역을 상징하는데, 그 사역은 셋째 천사의 강력한 운동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 사역에는 경고와 저주, 그리고 기생 라합으로 대표되는 제사장직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구원이 포함된다.

여호수아의 예언적 '저주'는 후에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에 성취되었다. 여리고 재건에 대한 그 저주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여리고의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을 잃고, 그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언을 담고 있었다. 엘리야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그 예언을 성취했는데, 그가 성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아들이 죽었고, 기초를 놓을 때 그의 맏아들이 죽었다. 엘리야의 메시지와 관련된 그 '저주'는 여리고를 재건하는 일로 상징되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치리라. 말라기 4:5, 6.

밀러의 엘리야 메시지와 연관된 밀러파 역사 속의 저주는 여호수아에 의해 예언되었고 엘리야와 아합의 시대에 성취되었다.

그의 시대에 벤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기초를 놓을 때에는 그의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는 그의 막내아들 세굽을 잃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열왕기상 16:34.

여리고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한 저주는,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실 때 행사하신 권능의 나타남과 분리할 수 없다. 화이트 여사는 이렇게 말했다. "옛 이스라엘처럼 그의 권능의 놀라운 나타남을 목격하도록 특별히 영예를 입은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명백한 지시를 감히 무시하려 든다면, 그들은 그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밀러주의자들은 한밤중 외침으로 절정에 이른 하나님의 권능의 나타남에 방금 참여하고도, 다니엘도 모세의 저주로 지목한 모세의 '일곱 때'에 관한 맹세를 거부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름은 성품의 상징이며, 여리고를 재건한 그 사람의 이름과 그의 맏아들과 막내아들의 이름은 매우 많은 것을 알려 준다. 히엘은 '능력의 살아 계신 하나님'을 뜻하며, 히엘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임을 시사한다. 그가 벤엘 사람으로 지칭되는 사실은 그가 교회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그의 맏아들 아비람은 '높음의 아버지'를 뜻하는데, 높여지고 들어 올려진다는 의미다. 그의 막내아들 스굽은 '높은'과 '높이다', '들어 올리다'를 뜻한다. 이 세 이름은 모두 하나님의 성품의 요소들을 나타내지만, 그들이 성취한 예언의 맥락에서는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전능하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며 스스로를 높였던 한 사람을 나타낸다. 예언에서 '문'은 교회를 뜻한다.

"겸손하고 믿음 있는 영혼에게,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하늘의 문이다. 찬양의 노래와 기도, 그리스도의 대표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한 백성을 하늘의 교회, 곧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는 그 더 높은 예배를 위해 준비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수단들이다." 증언, 5권, 491.

엘렌 화이트의 손자인 아서 화이트 등 재림교 역사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교회를 세우기 위한 사업의 시작은 1860년이였다.

엘렌 화이트는 교회 사업을 관리함에 있어 질서의 필요성에 관해 상당한 분량으로 글을 쓰고 출판했으며(Early Writings, 97-104 참조), 제임스 화이트도 연설과 Review지 기사들을 통해 이 필요성을 신자들에게 계속 상기시켰지만, 교회는 움직임이 더뎠다. 일반론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잘 받아들여졌으나, 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로 옮기려 하자 저항과 반대가 있었다. 2월에 실린 제임스 화이트의 짧은 글들은 적지 않은 이들을 안일함에서 깨워 놓았고, 이제 곳곳에서 말들이 무성해졌다.

미시간에서 White와 함께 일하던 J. N. Loughborough가 가장 먼저 답했다. 그의 말은 긍정적이었지만 방어적이었다:

'어떤 이는 말한다. "법에 따라 재산을 소유할 수 있도록 조직하면, 너희는 바벨론의 일부가 될 것이다." 아니다. 나는 법으로 우리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과, 우리의 종교적 견해를 보호하고 강요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것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이해한다. 교회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잘못이라면, 왜 개인이 어떤 재산이든 합법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잘못이 아닌가? - Review and Herald, 1860년 3월 8일.'

제임스 화이트는 '리뷰'에 실은 글을, 출판 사업의 조직화 필요 문제를 교회 앞에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맺었다. "우리의 제안에 이의가 있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 공동체가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문서로 작성해 주겠는가?" — 같은 글, 1860년

2월 23일. 현장에서 사역하던 목회자들 가운데 이에 가장 먼저 응답한 이는 '리뷰'의 중견 통신 편집자였던 R. F. 코트렐이었다. 그의 즉각적인 반응은 분명히 부정적이었다:

"화이트 형제가 교회 재산을 확보하기 위한 그의 제안과 관련하여 형제들에게 발언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에서 그가 정확히 어떤 조치를 의도하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법에 따라 종교 단체로 법인화하려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에게 이름을 만들자'는 것은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벨론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승인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Ibid., 1860년 3월 22일." 아서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1권, 420, 421."

제임스 화잇은 1860년에 교회가 되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으며, 교회는 "문"으로 상징된다. 엘렌 화잇은 1860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1860년에 죽음이 우리 집 문턱을 넘어 들어와 우리 가문의 가장 어린 가지를 꺾었다. 어린 허버트는 1860년 9월 20일에 태어나 그해 12월 14일에 세상을 떠났다." 증언, 제1권, 103쪽.

1863년에 화이트 부부는 장남도 잃었다. 한참 놀다가 몸이 달아오르자, 그는 천 도표를 제작하던 방으로 들어가 도표 제작에 사용되던 젖은 천 몇 장 위에 누워 낮잠을 잤다. 1843년과 1850년의 도표는 밀러파 운동의 기초를 나타낸다. 1863년에 제작된 도표는, 이전에 하박국의 두 판에 제시되었던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거부함을 나타낸다. 그것은 거짓된 기초적 메시지를 제시한다.

[1863년] 11월 27일 금요일에 부모가 Topsham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역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던 세 아들과 아델리아를 만났다. 그들은 모두 걸보기에는 건강했지만, 감기에 걸린 헨리만은 예외였다. 그러나 그다음 화요일인 12월 1일, 헨리는 폐렴으로 매우 아팠다. 수년 뒤 그의 막내동생인 윌리가 그 이야기를 재구성했다:

부모가 부재 중인 동안, 헨리와 에드슨은 하울랜드 형제의 감독 아래 판매를 위해 도표를 천에 배접하는 일에 분주히 종사했다. 그들은 하울랜드 집에서 한 블록쯤 떨어진 임대한 상점 건물에서 일했다. 마침내 보스턴에서 도표가 보내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며칠간의 휴식을 가졌다. ... 강가를 오래 걸은 뒤 돌아와서, 그는 [헨리] 생각 없이 종이 도표를 배접하는 데 쓰이던 축축한 천 몇 장 위에 누워 잠들었다. 열린 창문으로 쌀쌀한 바람이 불어 들어오고 있었다. 이 경솔함 때문에 심한 감기에 걸렸다.' 아서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2권, 70.

1863년, 밀러파 운동은 교회가 조직되고 하박국의 두 돌판에 나타난 기초적 진리를 거부함으로써 종결되었다. 주된 지도자는 벤엘 사람 히엘로 표상되듯 1860년에 성문을 세우는 일을 시작했고 그 일로 인해 막내아들을 잃었다. 1863년에는 위조된 도표들이 히엘의 맏아들이 낮잠을 자던 곳이 되었다. 그는 한기를 얻어 그해에 죽었다. 그의 죽음은 그때 제작되고 있던 그 도표들 위에서 잠을 잔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1863년에 제작되고 있던 그 도표는 밀러로 표상된 엘리야가 세운 기초를 위조한 것이었다.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는 여호수아의 명령은 'adjure'라는 단어로 표현되었다. 그 단어는 맹세와 저주를 의미하며, 레위기 26장에서 '일곱 번'으로 번역된 것과 같은 단어이다. 그것은 엘리야의 기별을 수반하는 저주이며, 밀러파 재림운동이 법적 교회를 조직하고 밀러의 '거치는 돌'을 거부함으로써 여리고를 다시 세운 1860년과 1863년에 그 저주가 성취되었다. 히엘이 베델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예언적으로 여리고를 재건한 히엘의 일을 교회를 세우는 일로 강조해 준다.

여호수아의 "저주"는 "일곱 번"을 거듭 언급하지 않고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전투인 여리고 성 전투 이야기와 함께 선포되었다.

1863년에 엘리야가 제시하고 윌리엄 밀러가 대표한 모세의 메시지, 곧 "서약"은 "저주"를 불러왔다. 모세의 메시지와 엘리야의 사역은 모두 거부되었다. 엘리야는 1989년에 돌아왔지만, 2001년 9월 11일 이후에 이르러서야 모세와 다시 연결되었다. 그 정보는 아직 입증되지 않았지만, 빈틈없다.

성화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서고 있다. 그들은 한 입으로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신을 찬양한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끌어안고, 그들의 행위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라고 말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삼가 주의하라. 사탄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자랑해 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기도하신 연합을 깨뜨리려 한다. 그는 말한다. '나는 나아가서 거짓된 영이 되어, 할 수 있는 자들을 미혹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곡하겠다.' 큰 빛과 큰 증거를 받은 교회가 속임과 거짓 증언의 아들을 영접한다면, 그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버리고, 가장 불합리한 주장과 그릇된 가정과 거짓 이론들을 받아들일 것이다. 사탄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지옥불 햇불에서 옮겨 붙인 거짓 예언의 햇불을 손에 들고 우리의 강단에 설 것이다. 의심과 불신을 품고 귀히 여기면,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안다고 여기는 백성에게서 신실한 목회자들이 거두어질 것이다. "네가 알았더라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다. "너라도, 적어도 오늘 이 날에, 네 평안에 속한 일들이 무엇인지! 그러나 이제 그것들은 네 눈에서 숨겨져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터는 굳게 서 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거룩히 구별된 사역자는 그의 입에 간사함이 없어야 한다. 그는 대낮처럼 투명하고, 모든 악의 오점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거룩히 구별된 사역과 출판 사업은 이 패역한 세대에 진리의 빛을 번개처럼 비추는 능력이 될 것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더 많은 빛이 필요하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라, 거룩한 산에서 경보를 울리라. 거룩한 마음으로 주의 군대를 모아, 주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듣게 하라. 듣는 모든 이들을 위해 그분은 더 큰 빛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무장하고 장비를 갖추어 전장으로 올라오게 하라—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대적하는 싸움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모든 거짓된 혀는 잠잠해질 것이다. 천사들의 손이 꾸며지고 있는 속임수의 계획들을 뒤엎을 것이다. 사탄의 보루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승리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따를 것이다. 여호와와 그의 군대 대장이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셨듯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은 승리할 것이며 모든 반대 세력은 패배할 것이다. 하늘에서 보낸 기별을 가지고 그들에게 온 하나님의 종들에 대하여

어떤 영혼도 불평하지 말라. 그들에게서 흠을 잡으며 "그들은 너무 단정적이다, 말이 너무 강하다"라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그들이 강하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이나 그분의 기별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게 하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을 규탄하실 것이다.

"사탄은 우리 백성 가운데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으며 그것을 버리라고 권면하는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 놓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갈 한 무리가 있다. 우리 가운데서 나가 더 이상 그 궤를 메지 않을 자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진리를 가로막는 장벽을 세울 수는 없다. 진리는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며 더욱 높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일으키셨고, 지금도 그분의 분부를 행하도록 준비되어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제대로 다져지지 않은 회반죽을 발라 놓은 벽에 불과한 제한들을 뚫고 나아갈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영을 부으시면, 그들은 일할 것이다. 그들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팔 소리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손에서 약화되거나 그 힘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 줄 것이다." 목회자들에게 주는 증언, 409-411쪽.